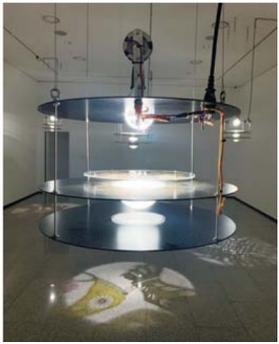


‘레트로스코프’...용·복합 시선으로 바라본 존재의 근원



신형섭작 'Liquid Lantern 9'



한진수작 '베일을 쓴 진화생물학자의 초상'

은암미술관 기획전 '레트로스코프-시간의연금술'...오는 27일까지

전자기적 장치, 시간의 흐름 통해 만나는 시각 이미지 신형섭·윤성필·한진수작가, 사물의 실체에 대한 고찰

어린 시절 비눗방울을 불어 허공으로 날려 보 내본 적이 있는가. 그 방울은 터지기 전까지 마치 실재하는 사물 같이 빈 공간을 차지한다. 19세기 말 신지학자인 블라바츠키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아주 작은 원자와 텅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우주에서 실재하는 것 또한 텅 빈 공간이며, 우주 생명체와 사물은 시간으로 형성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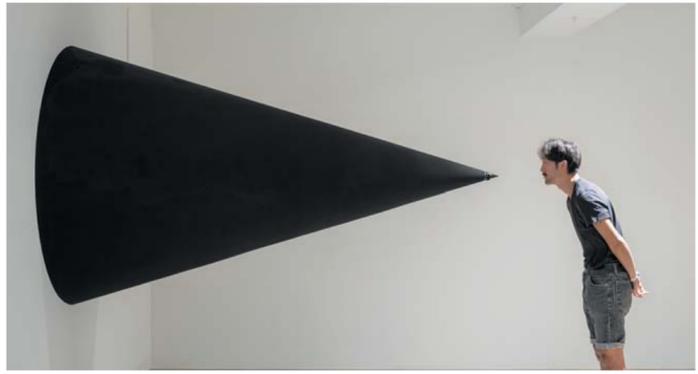
'시간의 흐름'을 통해 새롭게 변형되고 구축되는 시각 이미지로 인간과 사물 존재를 탐구하고 상상해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27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레트로스코프-시간의 연금술' 전시다. 광주 시 지원을 받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신형섭, 윤성필, 한진수 3명 작가의 설치, 영상 작품 등을 선보인다.

레트로스코프(Retroscope), 과거를 돌이켜본다는 의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지된 시간과 원근법적인 시각으로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적인 기계 작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각적이고도 시각적인 작품을 만나게 된다.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윤성필 작가의 뾰족한 원뿔 모양 기둥은 검은색 거대한 평면일 뿐이다. 그동안 굳건하게 구축된 지각적 인식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사례다. '전기적 작동'을 통해 생성되는 원뿔 형태의 작업은 우리의 세상이 견고한 입자들로 구축된 세계임을 한 순간 와해시킨다.

신형섭 작가의 아상블라주(다양한 재료가 조합된 입체 작품)는 현란한 입방체의 장비상자, 수집된 오브제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렌즈의 내외부 프로젝트는 천장이나 벽면에 투사되며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윤성필작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BK-01'

작품 속 다양한 오브제는 개인의 삶, 그리고 시대적 문화를 대변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지들이 융합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한진수 작가의 키네틱 작업은 전기적 장치와 시간의 흐름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장자의 무위(無爲)론을 연상하게 하는 그의 오브제 속 물방울은 어린 시절 비눗방울에서 연상된 것일 수도 있고,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원자와 텅 빈 공간을 비

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전시를 기획한 조관용 미술평론가는 "이번 전시는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전기적 장치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융복합의 시선으로 거시·미시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 탐험의 시간에서 만나는 미학적 존재는 원근법적인 시각 이미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사물의 실체와 생명의 근원을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초록의 흔적, 삶의 결을 따라

가운의 캔버스상체



네이클로버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이 아니다. 그 꽃말의 유래는 나폴레옹의 이야기처럼 극적인 순간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적으로 네이클로버는 상처를 딛고 자라는 생명의 흔적이다. 사람이 밟거나 동물과 곤충에 의해 생장점이 손상됐을 때 새롭게 돌아오는 잎이 네 잎, 다섯 잎, 여섯 잎 클로버가 된다. 상처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행운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은 삶 그 자체와 닮아 있다.

캔버스 위 초록의 결은 단순한 선과 색의 조합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품고, 감정을 담아내며, 나와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는 흔적이다. 붓질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쌓아 올린 결과다. 초록은

생명과 성장, 치유와 순환을 상징하며, 고요한 불안과 잔잔한 희망이 공존하는 색이다. 이 흔적은 단순히 지나간 자리라기보다 나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증거이자 가능성이다.

이 작업을 5단계 색으로 풀어본다. 첫 번째 레이어는 연한 올리브색으로, 상처 입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출발점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따뜻한 라임색으로, 상처를 딛고 피어나는 회복과 희망의 에너지를 담아낸다. 세 번째는 짙은 에메랄드색으로, 삶의 복잡성과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단계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민트색으로, 치유와 회복의 순간을 담아낸다. 마지막은 밝은 흰빛 초록으로, 모든 색이 통합돼 순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이 작업은 흔적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흔적이란 단순히 지나간 자리일까, 아니면 나를 만들어 온 모든 순간의 증거일까? 초록의 결은 망설임과 결단, 상처와 치유, 희망과 가능성을 담고 있다. 캔버스 위의 초록은 생명과 치유의 메시지



'마음산책-흔적'

를 전달하며,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결국, 이 초록의 여정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상처 난 자리에서 새로운 잎이 돋듯, 삶의 흔적은 희망과 행운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기적을 낳는다. 작품을 감상하며 초록의 결을 따라 걷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길 바란다. <대인동에서 화가강연>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협력 워크숍

17-18일 DJ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 오는 17-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4년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와 함께 1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의 교류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국내 도시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지자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교류사업이다. 2014년 이후 3국 문화 관련 부처

는 매년 각국 도시 중 한 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오고 있다. 선정된 3개 도시는 문화예술 교류활동과 함께 한중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한다.

한국에서는 광주시(2014), 청주시(2015), 제주도(2016), 대구시(2017), 부산시(2018), 인천시(2019), 순천시(2021), 경주시(2022), 전주시(2023), 김해시(2024), 안성시(2025)가 선정됐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당해년도에 이뤄지는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선정 도시들 간 교류와 협력이 필수"라며 "이들 도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